

주 일 예 배

2019년 12월 15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94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현종영전도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 1:1-5(John)	
이규본목사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예수님은 누구신가?” “Who is Jesus?”	이규본목사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493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12월 헌금 송:** 12/15: 에스더 선교회, 12/22: 글로벌 선교회
- 뉴욕 밀알선교단 방문:** 일시 2019.12.17(화)
 - 여 선교회에서 저녁 식사와 선물을 준비 하였습니다.
 -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예배:** 2019.12.25(수) 오전 11시
 - 성탄절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 각자 선물을 가지고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경공부와 셀 모임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

(12. 15. 2019)

본문: 요한복음 1:1-5

제목: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 1:1)

강림절은 영어로 'Advent'입니다.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 “도래”(arrival), “오심”(coming)이란 뜻입니다. 강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준비요, 두 번째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첫 번째 성탄이요. 이제 약속하신 대로 세상 종말에 도래하시는 영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째 성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1. 그리스도의 본질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1-2)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말씀을 들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시요, 우리가 듣고 전하는 복음의 주인 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 되었습니다. 그분 없이는 모든 것이 슬픔이요 모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이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에 심판주 이십니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믿는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는 것은 비밀스러운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나의 죽은 지각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 합니다.

3. 빛 안에 있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4절). 빛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 낼 때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계시를 빛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셋째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바른 생활을 빛이라고 표현 합니다. 빛은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광의 빛이요, 영원히 빛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그리하여 생명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빛 안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 졌습니까?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불신과 교만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애통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 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요 8:12)고 하셨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뜻한다. 또 하나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 속에 계시는, 빛의 계시적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도록 허락되었다. 볼 수 있고 감지 할 수 있도록 오신, 즉 빛의 근원의 계시로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 신다”는 말씀도 바로 이것이다. 주님은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다. 그 빛이 바로 이것이다. 주님은 빛의 본체 이신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다. 그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에서 전등을 켜고 전기 기구도 사용하고 있다. 이 전기는 빛이요 힘이다. 그러나 아무도 전기를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자력을 통해서 모터라고 하는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전등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빛 속에 살면서 그 빛을 모르고 있다. 죄와 허물로 가리워져서 빛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주께서 눈을 열어 주시고 계시해 주시므로, 그리스도가 빛 되심을 볼 수 있고 깨닫게 하셨다. 이제 세상을 빛으로 밝아지고 빛으로 보존 되어 가고 있다. 예수님은 신령한 빛이시며 도덕적인 빛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빛만이 아니라 생명의 빛, 영적인 빛까지도 바라본다. 선과 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구별되고 가치의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르게 구별되고 가치의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졌다. 인간의 지혜, 이성까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아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지식은 마귀의 지혜이다. 지금도 인도에는 길가에 소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굶어죽으면서도 소가 신이라고 해서 숭배하고 있다.

다음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므로 그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요 8:12) 생명의 빛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취 주시므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생명을 말한다. 빛 자체가 생명의 근원으로써 이 빛을 받음으로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이 빛 안에서만 생명이 온전해지고 성장한다는 뜻이다. (12152019)

2019년 기도제목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후 4)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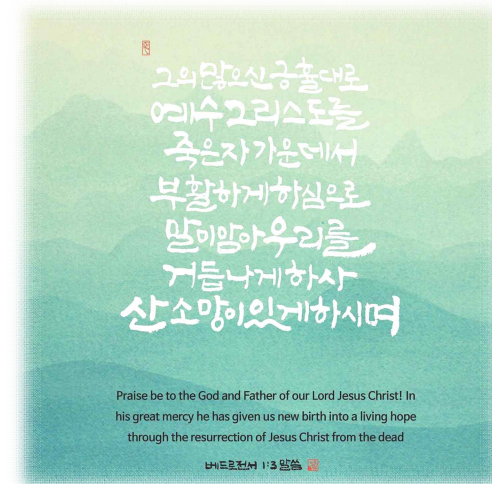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 *담임목사 : 이규본
- *행정전도사: 현종영
- *교육전도사: 최화숙, 전행복(EM)
- *전도사: 박휘영, 한우연
- *장로: 안석원 *권사: 이재숙
- *안수집사: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 *지휘: 이재숙 *반주: 서난숙
- *찬양대: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 배 시 간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